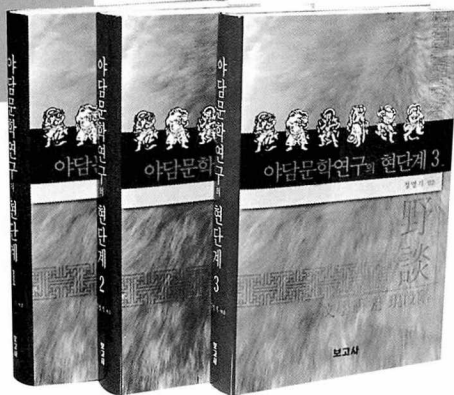


야담의 문학성 집대성해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전3권)》

야담연구의 성과를 모은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가 출간됐다. 총론을 첫머리로 형성론, 갈래론 등 명확하게 구획한 논문들이 야담연구의 현재를 잘 보여준다. 임형택 교수(성균관대), 조희웅 교수(국민대) 등 야담연구에 일가를 이룬 학자들은 물론 강영순, 김준형 등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까지 한데 엮어 야담연구를 중흥으로 집대성했다. 질적인 면에서도 높이 추앙받는 작품들이 여전히 전하고 있고, 1900년대 전반에는 통권 110호를 기록한 잡지 《야담(野談)》이 독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을 정도로 대중적인 문학장르였던 야담을 오늘에 되살린 것이다.

야담에 대한 글의 효시로 꼽을 만한 국학자 김태준의 〈야담의 기원에 대하여〉는 야담의 기원을 추측하고 작품을 향유하는 사회상도 소개한다. 그러나 “문예가는 비속한 야담객과는 달르게 구원한 이상을 목표로 용진하여야 할 것이다” 등 글 곳곳에서 야담의 가치를 인정하지



정명기 엮음
보고사/A5신/548면 내외/각20,000원

않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이강옥의 〈야담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연구전망〉과 김준형의 〈야담 연구사〉는 야담연구의 30년 역사를 돌아보며 성과와 전망을 겸손하고

담담하게 풀어놓는다. 야담의 정의와 영역, 여타 기록문학작품들과의 관계, 역사와 시대를 떠날 수 없는 문학 본연에 대한 지난한 고민도 털어놓는다. 특히 김준형의 글은 책 구성과 마찬가지로 연구분야를 나눠 중요연구자의 의견을 적시하고, 연구사의 맥을 짚어 비판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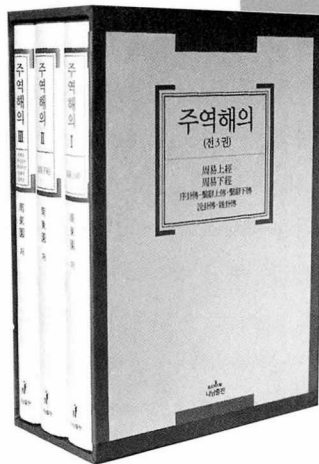
분야별로 읽기 좋게 나눈 논

문들은 전공자는 물론 이야기를 좋아하는 일반독자들이 야담에 대한 지식과 연구성과를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정의·역사 등 야담에 관한 기초지식부터 개별작품론까지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추구(推究) 덕분이다. 책 말미에 단행본과 논문목록까지 곁들여 좋은 자료집이 된다. 그러나 책에 실린 각 논문의 발표시기를 적지 않아 연구흐름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차정신기자

나남출판에서 1천2백여쪽 분량의 《주역해의(전3권)》(남동원)가 출간됐다. 1권과 2권은 각각 주역상경과 주역하경의 번역과 주해로 구성됐고, 3권은 서괘전·계사상전·계사하전·설괘전·잡괘전 등을 번역하고 주해를 덧붙였다.

《주역》은 《시경》《효경》《서경》《춘추》와 함께 오경(五經)의 하나로, 중국사상을 떠받치는 뿌리다. 5천년 전 복희씨가 괘·효라는 부호를 그려 정치·경제의 수단으로 삼았고, 3천년 전에 주나라의 문왕과 주공이 괘와 효에 대한 설명을 붙여 만들어진 게 《역경》이었다. 춘추전국시대에 공자가 다시 열 가지 해설적인 《십익》을 붙여 《주역》으로 집대성했다.

지은이는 서문에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문명을 일구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문명도 한번 쇠퇴하고 나자 다시는 지나간 옛 시절의 융성함을 되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 문명은 다르다”면서 “중국문명은 쇠퇴하게 되면 또 새로운 성왕, 성인이 일어나서 그 찬란한 문명을 계승 발전시키고 근대까지 이르렀으니, 과연 유구하면서도 고명(高明)한 문명이라 할 만하다. 그 원동력은 복희씨의 시작팔괘로 말미암은 궁변통구(窮變通久)의 역리(易理)이며 그것이 중국문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고 《주역》 원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남동원 저음
나남출판/B5변형/640면 내외/25,000원 내외

《주역》의 학문적 전통에 기반해 궁변통구 원리 밝힌 주해서

《주역해의(전3권)》

이 책의 주해자인 남동원옹은 국내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재야학자다. 1920년 경북 의성에서 출생했고 일본 명치대를 중퇴하고 일본에 거주하면서 반평생을 동양철학서와 불경 등의 연구에 바쳤다. 동아일보 남준구 이사의 부친으로 나남출판과 인연을 맺어 이번에 국내에서 출판하게 됐다.

이 책은 원고가 출판사에 들어온 지 3년 반만에 출간됐다. 남옹의 한국어가 만연체 위주의 옛날 한국어여서, 비교적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데 편집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나남출판의 김철 편집국장은 털어놓는다. 김국장은 “동양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지만 《주역》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는

무척 조심스럽다. 《주역》에 대해 언급은 하지만 직접 번역하거나 주해를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문 실정”이라고 밝히고, “대산 김석진옹의 《주역》 연구가 한국식 주역으로서 의미가 있다면, 남동국옹의 연구는 예부터 내려오는 주역관계 서적과 일본 학자들의 연구서를 아우르고 있어, 주역의 학문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 책이 《주역》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출간의의를 밝혔다. —김정근기자